

‘왕따’ ... 학교가기 두렵다



◇ ‘집단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교교육·특별활동 등을 통해 개성있고 치우침없는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해 광주·전남교사불자회의 청소년 축제.

‘집단 괴롭힘’ 작년보다 8배 늘어

최근 급우 5명에게 무려 50여가지에 이르는 ‘집단괴롭힘’을 당한 후 결국 이면의 길을 택한 학생에 대해 가해 학생 및 그 부모, 학교와 감독기관인 서울시가 공동대책임을 지고 연대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4일에는

간의 8배에 달한다. 피해학생들이 빼앗긴 금액도 총 4억6천여만원에 이른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 집단괴롭힘의 잔혹성과 폭력성이 끔찍할 정도로 이르렀다. 불교적인 전인교육으로 청소년문제 0%에 도전하는 종합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집단괴롭힘 방지 및 극복 방안을 들어본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불교의 눈

종합학교 교장들에게 듣는 ‘집단 괴롭힘’ 대책

가장에서는 인성교육의 출발지인 ‘바람 머리 교육’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쳐야 한다. 학교는 다양한 학생의 개성과 협동심을 키워주는 창조적이고 활발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사회는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고 청소년문화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말

‘집단 따돌림’은 하나의 인연소생(因緣所生)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왕따’의 대상이 되는 아이는 선천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될만한 조건(因子)을 가지고 있다가 ‘왕따’가 될만한 조건(緣)을 만나 고역을 치루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서 성격 등을 개선할 수 있으나, 타고난 문화유전

‘집단 따돌림’은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다. 교사와 부모들은 학생과 자녀의 마음을 읽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자녀들의 작은 변화를 보고도 조짐을 미리 파악해야 하며 자녀들과 친한 친구들이 누구인지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한다. 방송·연륜도 ‘왕따’를 과잉보호해 아

부모들은 공주병·왕자병 자녀들을 길러 학교에서 이기적인 아이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내성적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속내를 털어놓는 습관을 길러줘야 한다. 학교는 가해 학생들이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남들보다 뒤처지거나 뛰어난 친구를 이해하

가장에서는 인성교육의 출발지인 ‘바람 머리 교육’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쳐야 한다. 학교는 다양한 학생의 개성과 협동심을 키워주는 창조적이고 활발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사회는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고 청소년문화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말

‘집단 따돌림’은 하나의 인연소생(因緣所生)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왕따’의 대상이 되는 아이는 선천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될만한 조건(因子)을 가지고 있다가 ‘왕따’가 될만한 조건(緣)을 만나 고역을 치루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서 성격 등을 개선할 수 있으나, 타고난 문화유전

‘집단 따돌림’은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다. 교사와 부모들은 학생과 자녀의 마음을 읽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자녀들의 작은 변화를 보고도 조짐을 미리 파악해야 하며 자녀들과 친한 친구들이 누구인지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한다. 방송·연륜도 ‘왕따’를 과잉보호해 아

부모들은 공주병·왕자병 자녀들을 길러 학교에서 이기적인 아이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내성적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속내를 털어놓는 습관을 길러줘야 한다. 학교는 가해 학생들이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남들보다 뒤처지거나 뛰어난 친구를 이해하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지 1년이 되어간다. 내년 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과 더욱 파국으로 치달고 있다는 비판적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경제가 IMF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기업 및 금융의 구조조정, 실업대책,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개혁, 그리고 개방경제체제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해 왔느냐가 내년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구조조정을 한다고 소리는 높였지만 중소기업의 제외하고는 협조용자, 화의, 법정관리 등으로 기업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했지 매각, 합병, 청산 등으로 기업을 퇴출시키지는 못했다. 경쟁력있는 기업이 살아남아 안 자금을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덩핑 등을 통해서 시장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건전한 기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5대 그룹에 대해 빅딜을 강요하고 있지만 빅딜을 통해서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오히려 과잉용량의 규모를 키우고 부실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의 구조조정에서 21조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돈으로 BIS 기준만 맞춘다고 금융기관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금융산업의 근본적 개혁이다. 노르웨이 등에서 했던 것처럼 회생가능성 없는 은행에 대해 우량채권과 불량채권을 분리하여 합병 매각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외국금융기관의 참여를 장려해 외국의 자본과 노하우가 대대적으로 유입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고용유지지원, 실질적대부사업 등의 실업대책을 위해서 올해 6조원, 내년에는 8조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실효성이 의문시될 뿐 아니라 그 과정에 많은 낭비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실업대책이 미래가치창조형 사업이라기 보다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성격이 강한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집행과정에 투입되는 공무원과 그들의 관리노력 그리고 관계부처간 공조체제의 미비, 일선 담당공무원의 사명감이나 전문성의 결여 등을 생각하면 실제로 실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얼마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가치창조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IMF 이후 정부의 규제완화가 상당히 진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일선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통한 간섭과 이 과정에서 생겨난 부패구조는 여전히 심존하고 있다. 한편 대기업의 민영화는 계획만 있고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개방경제체제의 구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외국인 투자인데 상반기에 작년 대비 19% 정도 감소한 것은 개방경제와 관련한 우리의 노력이 부족함을 말해주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기업 대표들은 한국을 기업하기 가장 힘든 나라 중의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은 국경이 사라지는 정보화시대에 대륙과 태평양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이고, 비교적 기술과 품질의 하부구조가 튼튼하여 아시아의 금융과 산업의 중심지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다. 이런 의미에서 내년은 중요하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를 찾고 해결해 나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노부호 <서경대 교수·경영학>

“대기업 빅딜 금융 구조조정 실업대책등 성과 미흡하다”

가장에서는 인성교육의 출발지인 ‘바람 머리 교육’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쳐야 한다. 학교는 다양한 학생의 개성과 협동심을 키워주는 창조적이고 활발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사회는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고 청소년문화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말

‘집단 따돌림’은 하나의 인연소생(因緣所生)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왕따’의 대상이 되는 아이는 선천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될만한 조건(因子)을 가지고 있다가 ‘왕따’가 될만한 조건(緣)을 만나 고역을 치루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서 성격 등을 개선할 수 있으나, 타고난 문화유전

‘집단 따돌림’은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다. 교사와 부모들은 학생과 자녀의 마음을 읽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자녀들의 작은 변화를 보고도 조짐을 미리 파악해야 하며 자녀들과 친한 친구들이 누구인지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한다. 방송·연륜도 ‘왕따’를 과잉보호해 아

부모들은 공주병·왕자병 자녀들을 길러 학교에서 이기적인 아이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내성적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속내를 털어놓는 습관을 길러줘야 한다. 학교는 가해 학생들이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남들보다 뒤처지거나 뛰어난 친구를 이해하



◇ 한국심장재단 창립이사장인 이순자여사가 1만5천번째로 수술을 받은 환원영 아기를 어루만지고 있다.

한국심장재단 1만5천명에 새 생명

한국심장재단(이사장 한용철)은 5일 교육회관 대회의장에서 ‘1만5천명 새 생명 탄생기념식’을 거행했다. 지난 84년 2월27일 전두환 전대통령 부인 이순자씨가 설립한 이 재단은 최근 서울 삼성병원에서 선천성심장병에 걸린 생후 5개월인 환원영 아기를 1만5천번째로 수술후 무사히 퇴원시킨 것을 기념해 이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한용철 이사장은 “14년간 경제 적 형편이 어려운 심장병 환자는 물론 얼굴기형, 신장·골수이식, 기타 질환자들에게도 수술비를 지원해 왔다”면서 “고통속에서 꺼져 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한국 부패지수 세계 43위

김정길 장관-김옥두 의원 공무원 비판서 퍼냈다

세계의 부패추방을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는 올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지수(CPI)를 85개국 가운데 43위인 4.2로 평가했다. 싱가포르 7위, 일본 25위, 대만 29위에 크게 뒤처지는 순위다.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동남아국가 등 전세계적으로 ‘부패와의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현지 장관과 국회의원 공무원들의 비리와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한 책들을 펴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옥두 의원(국민회의).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이 행정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부정부패 등의 병폐를 적나라하게 폭로한 책은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김 장관의 눈에 비친 공무원의 첫 인상은 ‘순발력과 눈치’였다. 서울 여의도 개인사무실에서 장관으로 결정됐다는 연락을 받은지 10분만에 행정부 간부들이 찾아왔다 취임사에도 관용



차, 결재서류에다 ‘행정자치부 장관 김정길’이라는 명함까지 준비돼 있었다. 또 △정신이 없도록 일정을 짜거나 쓸데없는 방문객이 물리쳐 하는 등 ‘장관 길들이기’ △조직-인력감축 등 개혁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 △지역-학연에 따른 출서기와 난무하는 투서 △규제만 앞세우는 ‘못된 시어머니’ 버릇 △다른 부처의 업무에 대한 넘소주의 등이 두루 거론됐다. 국회 행정자치위 김옥두 의원의 공직사회의 문제점과 공직개혁 방향을 정리한 <공직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정책자료집을 펴냈다. 김의원은 개혁대상 공무원을 △스프링형(감할 때는 복지부동) △권선권사(權權權死, 철저히 줄대기)형 △투덜이(불평불만)형 △로봇(무사안일주의)형 △하이어나(돈벌 일만 찾는)형 △물귀신(보물 분배)형 △카멜레온(기회주의)형 △공룡(떠남기)형 △터줏대감(장관은 길어야 2년)형 △마피아(지·학연)형 등 10대 유형으로 분류, 비판했다. 김재경 기자

주머니 속 대장정 시리즈 102 - 교리·입문편

“팔만사천 법수에 담긴 깨침의 묘리”

경전에는 숫자가 붙은 불교 용어가 무수히 많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숫자들을 가리켜 법수(法數)라 한다. 진리를 깨닫게 하는 숫자. 혹은 진리를 나타내는 숫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쓰는 세속의 숫자와는 달리 불교의 법수는 대략 두 가지 측면의 특징을 가지는데, 하나는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에서 중생과 세계의 모습에 대해 내린 분석과 판별의 결과를 중생들에게 가르칠 때 사용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해탈을 이루지 못한 중생들을 해탈에 들게 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중생들에게 일러 주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점이다.

-머리말에서-

●이제일 지음●
B6 변형 19쪽/값 4500원
여시이문 펴냄

법수로 배우는 불교

▶ 수록된 법수 목록

일념(一念), 일단일체단(一斷一切斷), 일불승(一佛乘), 일심(一心), 이공(二空), 이변(二邊)과 중도(中道), 이장(二障), 삼계(三界), 삼법인(三法印), 삼보(三寶), 삼성(三性), 삼업(三業), 삼처전심(三處傳心), 삼학(三學), 사덕(四德), 사성제(四聖諦), 오개(五蓋), 오온(五蘊), 오망상(五妄想), 오안(五眼), 육도윤회(六道輪廻), 육바라밀(六波羅蜜), 육신통(六神通), 칠각지(七覺支), 칠번(七辯), 칠불통계(七佛通戒), 팔난(八難), 팔부중도(八不中道), 팔식(八識), 구상관(九想觀), 구품(九品), 구종식(九種食), 구형사(九種死), 십금강신(十金剛身), 십력(十力), 십인(十忍), 십이연기(十二緣起), 49재(齋), 53선지식(善知識), 32길상(吉祥), 80종호(種好), 108번뇌(煩惱), 천수천안(千手千眼), 팔만 사천 법수(法數)

여시이문 주소 : 서울시 동구로 경지동 110-33 전화 : 737-0335(영일부), 737-0391(편집부), 737-0397(배스)